

# 2025년 제2차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 의 결 과 보 고 서

심사일시	2025. 11. 20.(목) 11:00
참석위원	5명
심의안건	2025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
검토의견	<p>1. 보고서 구성 및 충실성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보고서는 출장 개요, 방문기관별 주요 내용, 시사점 도출, 향후 활용방안 등 규정상 필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전체적인 서술 체계 또한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</li> <li>○ 방문기관의 선정은 도시계획, 복지, 문화·예술, 교통, 환경 등 금천구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.</li> <li>○ 기관별 운영 사례, 정책 도입 배경 및 적용 방식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, 단순 시찰을 넘어 정책 학습을 목적으로 한 연수였음이 확인됩니다.</li> </ul> <p>2. 정책 활용 가능성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시사점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 고도화, 공군부지 복합개발 전략, 지속가능 도시 조성, 역세권 중심 기능 재편, 공원·녹지 관리체계 개선 등은 금천구가 직면한 현안과의 부합성이 높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.</li> <li>○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금천구 실정에 기반한 단계별 실행계획, 사업 구체화 방안, 적용 예상 효과 등 보다 실천 중심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의정활동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/li> </ul> <p>3. 예산 및 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장 일정, 방문기관 구성, 규모 등은 사전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며, 여비 집행 또한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(별지 계속)</p>
심사위원회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위원장 김진우 (서명)</p> <p>부위원장 박기영 (서명)</p> <p>위원 김성관 (서명)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위원 김동만 (서명)</p> <p>위원 이상락 (서명)</p> <p>위원 김성관 (서명)</p> </div> </div>

## [별지]

<b>검토의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특히 예산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.</li></ul> <p>4. 종합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주민들이 갖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,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배우고 확인한 정책 사례를 금천구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/li><li>○ 또한 해외연수 결과물이 구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보도, 카드뉴스·영상 제작, 의회 홈페이지·SNS 홍보 등 대외 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</li><li>○ 이번 출장의 내용과 보고서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, 예산 집행 또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러한 성과가 이어진다면 향후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</li><li>○ 종합적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, 방문기관의 선정 타당성, 시찰 내용의 현장성, 정책 반영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한 보고서로 판단됩니다.</li><li>○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성실하고 분석 중심의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천구 정책 발전과 의정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보고서 내용의 정책화·홍보 강화를 적극 권고합니다.</li></ul>
-------------	--